

2003년도 전국초등학생대상금연글짓기 수상작품

《《《《 고학년부 은상

담배야 잘 가.....

대구 월배초등학교 5학년 5반 송영실

‘콜록 콜록’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니 가슴이 아픕니다. 할아버지께서 삼십년 전에 멀리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 이제껏 혼자 외롭게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 벌써 일흔을 훨씬 넘긴 연세여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할머니는 긴 긴 세월 혼자서 담배를 피우시며 외로움을 달래셨나 봅니다. 할머니의 약해지신 몸이 걱정이 되어 내가 할머니에게 때를 써도 보고, 할머니하고 말 안 한다고 괜히 겁도 드리지만 할머니는 담배 끊기가 힘드신가 봅니다.

“요거만 피우고 안 피울게. 그래도 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영실이 밖에 없네.”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엉덩이만 툭툭 치십니다. 내 눈치를 보느라 늘 몰래 피우시는 할머니의 담배연기는 아빠의 마음도, 내 마음도 아프게만 합니다.

‘저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실려고’ 지난 체육시간에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슬라이드를 통해 배웠습니다. 또 담배가 일으키는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폐암, 기관지염, 식도암, 후두암, 구강암, 이렇듯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 병들을 담배가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끔찍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담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확실히 알게 되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 오셨습니다. 아버지 10살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를 이만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 동안 할머니는 외로움도, 슬픔도, 힘든 세상도 담배연기에 묻어 두셨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속에 할머니의 힘든 세월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꾸만 약해지는 할머니의 모습에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으셨으면 하고 늘 내가 할머니께게 때를 씁니다.

“아이구, 이제 영실이 말대로 정말 담배끊어야 되겠다.”

며칠동안 기침을 계속 하시던 할머니는 엄마에게 이끌려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나빠지셨단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된다는구나.”

엄마의 걱정스러운 말에 나도 자꾸만 겁이 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자꾸만 커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는 할머니 평생의 친구인 담배와 이별을 할려고 합니다.

가끔씩 몰래 몰래 피우시는 것도 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합니다. 평생을 같이 한 친구와 헤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테니까요.

“담배야. 제발 이제 우리 할머니 곁을 떠나가줘. 안녕, 잘 가.”

이제 할머니도 담배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2003년도 전국초등학생대상금연글짓기 수상작품

《《《《 고학년부 은상 인체에 해로운 담배》》》》

김제 중앙초등학교 5학년 7반 노경미

요즘 우리나라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남·여 구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화장실, PC방, 노래방 같은 곳은 찌들은 담배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심지어 금연구역인 곳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담배를 피우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흡연자뿐만이 아니다. 주위의 간접흡연자도 인체에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삭막한 산업화 된 도시 속에서 담배연기로 인해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담배 속에는 타르와 니코틴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기관지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호흡곤란, 심하면 폐암에 걸려 생명에 지장을 받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아주 위험하다.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며, 병에 걸리기도 쉽고, 정신이 혼미해서 공부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것이다. 한동안 TV에서 금연홍보를 한 참하던 때가 있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인해 많은 후회를 하다 고통을 받으며 결국 사망한 끝에 금연홍보는 대중매체에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TV에서도 흡연 장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있어 흡연을 하게 된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 호기심으로,

주위 친구들이 피우니까 자신도 흡연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대중매체의 힘으로 금연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갔다. 허나 그것도 잠시였다. 그때 뿐 이었던 것이 하나, 돌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스트레스와 힘든 일이 생기면 담배생각이 나는 모양인지 몇 달 가지 않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새 늘어나고 말았다. 정말 심각한 사람은 하루에 2~3갑씩 피운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고 나서야 후회하며 그때서야 담배를 멀리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엇하나?

또 요즘은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흡연 시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고, 아기가 유산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잘 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피우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담배를 끊기 또한 정말 힘들 것이다. 담배의 양이 많을수록 흡연자는 많아 질 것이고 담배가 눈에 자주 띄면 흡연충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흡연을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은 모방성과 호기심이 강하므로 청소년 앞에선 담배 피우는 것을 삼가야 하고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하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점점 그 양을 줄여 건강을 해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㉞